



12월 FOMC 회의 결과

정인영 연구원

- 12월 13일(현지시각), FOMC는 최근 미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연방기금 금리 동결을 비롯해 기존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함.
 - 미 연준은 물가가 연초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안정된 상태로 향후 몇 분기에 걸쳐 완만하게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, 실업률도 목표치까지 천천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.
 - 이에 따라 지난 8월 발표와 마찬가지로 2013년 중반까지 연방기금금리의 목표범위를 연 0.0~0.25%로 유지하기로 함.
 - 또한 지난 9월 발표한 연준 보유 증권에 평균만기연장(Operation Twist)과 주택저당증권(MBS) 및 국채에 대한 재투자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밝힘.

- 또한 시장의 예상대로 3차 양적완화(QE3), 재할인율 인하와 같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평가됨.
 -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가계지출 증가세, 기업투자증가율 둔화 및 주택시장 침체와 더불어 전세계 금융시장 위축으로 인한 경기하방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경제회복세 강화와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준비할 것임을 밝힘.
 - 이러한 향후 추가 부양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제지표 향방이 확인되는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됨.

- 전반적으로 이번 FOMC 회의는 미국의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주며 기존 통화정책방향을 좀 더 분명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음.

(FOMC 발표 등, 12/13)